#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 Quo vadis, Domine

**글** 신소희

### 식별, 식별하는 삶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디셰르네레'(dis-cernere)는 희랍어 '디아크리노'[δια(분리)-κρίνω(판단하다, 결정하다)]에서 유래한다. 곧,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섞여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평가하고자 분리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뜻한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식별'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모여든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보물과 진주 상인, 그물의 비유'(마태 13,44-50)는 식별의 쉽고도 적절한 예가 된다. 사도 시대에는 각 지역 교회 공동체에 보낸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신자들에게 식별 교육이 이루어졌고, 초기 교부 시대부터는 각 시대의 신학자와 영성가, 신비가들이 그 시대의 풍토에 맞게 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쟁점이 된 사안과 가치를 식별하도록 저술하고 가르쳐 왔다. 교회 안에서 식별 교육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교회 구성원들의 삶이 곧 식별하는 삶'임을 알려 준다.

그리스도인의 '식별'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선택한 바의 실행'을 뜻한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것의 '포기'를 함의하며, 아울러 이미 한 선택으로부터 돌아서는 '회심'과도 연결된다. 식별 과정에는 '선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 구분하여 전자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두 개의 선하고 좋은 것 가운데 '더 나은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더 나은 것'이란 '지금 나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한다. 내 마음이 더 기우는 쪽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나설 수 있는 내적 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 가까이 따르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직장과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분석하고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에도 식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식별은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되, 이 과정이 곧 신앙의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므로 '영적 식별'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이 교회 구성원임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단순히 '식별'이라는 용어로 표기하려고 한다.

▲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안니발레 카라치.

## 베드로의 길, 식별의 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Quo vadis, Domine?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신약 외경 하권」(송혜경 역) '행전'과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전승에 묘사된 베드로 사도의 '순교 여정'은 곧 '식별의 여정'이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당시 로마인들의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신자들을 감화시켰다.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되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아그리파스의 네 후궁과 황제의 친구인 알비누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부부 관계를 그만둔다. 이에 알비누스와 아그리파스는 … 베드로에게 복수하려고 마음먹는다.

크산티페가 경고하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권유하자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성문으로 향한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도시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하고 대답하신다. … 그제야 베드로는 제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 뒤에 베드로는 로마로 되돌아간다. 주님의 말씀이 다름 아닌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이다"(「신약 외경 하권」, 129쪽 참조).

## 회심과 선택, 그리고 포기

베드로가 죽을 위험에 놓인 것을 알게 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그에게 피신하도록 설득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필경 베드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크게 고심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수행하고자 혼자서 피신할 것인가? 아니면 체포되어 순교함으로써 신앙을 증언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혼자서 피신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발현하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아듣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베드로는 제정신을 차려 가던 길을 포기하고 로마로 되돌아가 순교하였다.

식별 과정을 마친 뒤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영적 위로'(spiritual consolation)이다. 로마로 되돌아온 베드로가 기쁨을 느꼈고 주님을 찬양한 것을 보면(「신약 외경 하권」, 501쪽 참조), 그는 선택한 행위를 실천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맛보며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순교 사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가 해야 할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당신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신다는 말씀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요한 21,15-19)의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베드로의 존재에 깊이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 사랑의 기억이 그의 정신을 일깨웠을 것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사도들의 경우와는 달리, 성경 읽기와 말씀을 묵상하고 관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듣고 보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인식이 깊어져 가고, 내면이 점진적으로 그분과 동화되어 간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길러지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듯이(10,16 참조) 우리도 주변의 무수한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구분하여 알아듣고 따르게 된다.

### '죽음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화는 초대교회의 환경과 관심사를 반영하는 식별의 예이다. 우리 시대에 순교로서 신앙을 선포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 또한 일상생활에서 신앙 때문에 자아로부터 죽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 시대의 식별 대상으로 떠올릴 사안은 아마도 '정보의 분류와 선택'이 아닐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쳐 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식 구조와 가치 체계를 왜곡하고 손상하는 정보들을 구분하고 버릴 수 있는 '식별력'이라 하겠다.

2023년 벽두에, 올해가 "우리가 듣는 많은 목소리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죽음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의 목소리인지를 식별하는 능력"(2018년 3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담은 영상 메시지)을 더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 버클리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 내면의 움직임 읽기

글 신소희

'베르나르도 성인을 안으신 그리스도', 프란치스코 리발타.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며 기도한다. 예로부터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추구한 남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을 떠나 사막이나 한적한 곳의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가 생을 보냈다.

수도원은 하느님과 합일의 삶을 추구하며 수행에 정진하는 존재 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수도승들의 일상 언어는 침묵이다. 하지만 그 같은 외적 환경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각 종교의 남녀 수도승들은 "몸은 산중에 있으나, 생각과 마음은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는" 실존적 현실을 경험한다고 고백한다. 에바그리우스(345–399년)는 '생각'을 "수도승을 괴롭히기 위하여 악령이 사용하는 수단"이라 정의했지만(「프락티코스」, 49쪽), 침묵하며 기도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집요하게 일어나는 분심 잡념을 경험하고 있으니, 그 고충이 어디 수도승들의 영적 여정에 국한되랴.

### 내 안의 세 가지 생각

하느님과 깊이 만나고자 내적 생활에 투신했던 교부들과 영성가들은 자기 내면에서 작용하는 '생각들'이 있음을 경험으로 인식했다. 오리게네스(185–254년)는 자기 내면에서 두 가지 생각을 구분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기억 또는 사물에 대한 관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며, 둘째는 밖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하느님과 선한 영들이나 반대되는 영들에 의한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마누엘 루이스 후라도, 「영적 식별」, 103쪽). 중세 영성가 가운데 '꿀같이 달콤한 박사'라는 별칭을 가진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1090–1153년)는 시토회 수도원장으로서 설교를 통해 수도승들에게 영적인 길과 식별을 가르쳤다.

"우리는 날마다 현재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든지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또한 기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 그분의 말씀은 이러한 그분 현존의 고유한 표지를 남긴다. 진리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말인지 식별하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 마음이 듣는 다른 말들도 있다. …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배반을 귀띔한 말과 같은 것이다. 악으로 유혹을 한다"(「아가서 설교」, 32,3.6).

베르나르도는 성령의 비춤 안에서 '악을 아는 것'과 '합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영적 식별」, 126–127쪽 참조).

근대 교회에서는 로욜라의 이냐시오(1491–1556년)가 '세 가지 생각'과 그 식별 규칙을 작성했다. 젊은 궁정 기사 이냐시오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휴양하던 시기에 생의 대전환을 맞이했다. 이후 '식별'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영성 생활에 투신하는 중에 다양한 내적 움직임을 경험하는 영혼들'을 돕고자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식별의 규칙'을 썼다.

"내 안에는 세 가지 생각들이 있다고 본다. 즉 순전한 내 자유와 원의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생각과 밖으로부터 오는 두 가

지 생각들인데 하나는 선한 영으로부터 오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영신수련」, 32번).

현대 영성 저술가 가운데 G. 메이(1940-2005년)는 영적 지도자를 위한 저서에서 '인간 영성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힘'에 관해 논했다. 첫째 힘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영적 갈망이며, 둘째 힘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리움으로 우리의 영적 갈망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하다. 셋째 힘은 영적인 삶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자유를 향한 우리의 성장에 반대되는 힘으로, 영적 깨달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적 두려움과 저항이다. 넷째 힘은 개인의 정신에서가 아닌, 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근원에서 오는 힘이다(*Care of Mind Care of Spirit*, 23-25쪽 참조).

##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

영성가들의 경험을 통한 이론을 들으며, 우리 각자도 '내 안의 움직임들'을 의식하게 된다. 하느님의 모상이며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형인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길을 떠난다. 그 영적 여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용하며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들 가운데 따를 것과 버릴 것을 분류해 선택의 길을 걷는다.

침묵 피정에서 개인 동반을 하다 보면 개인 기도 가운데 오간 모든 생각과 대화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대한다. 그런 이해와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는 영적 동반자로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님, 제게 지금까지 나누신 것처럼 ○○님의 기도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를 참으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머뭇거리다가 "아니요."라고 답한다. 대화를 통해 알아듣게 된 바, 그 같은 현상은 변화무쌍한 우리 내적 움직임의 속성—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모두 성령이나 악령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자신의 생각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생기는 착오로 볼

수 있다.

건전하고 성숙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이냐시오의 식별 규칙 주석서」를 저술한 J. 토너는 이렇게 기술한다.

"[이냐시오의 식별 규칙에서] '영들'이란 성령과 창조된 영적 존재(천사, 사탄, 악령)를 말한다. 그리고 '악령'은 창조된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 사회의 악한 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곧 성령께서 믿음, 사랑, 희망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내적 움직임(생각, 정서적 느낌과 행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Spirit of Light or Darkness?*, 12쪽).

그는 그리스도인이 성찰하고 식별할 사안의 범위가 신앙생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관계, 곧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 사회구조와 정치경제 제도, 학문 이론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한다.

## 하루 15분, 의식의 흐름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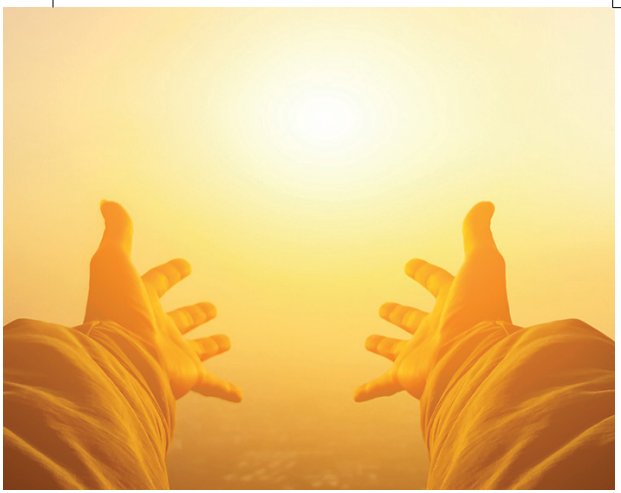
하느님께 선물 받은 지성을 통해 우리 의식의 흐름을 성찰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면 식별하는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식 성찰을 하면서 포착되는 생각과 느낌, 정서들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이 참 그러네…."라며 넘어가기보다 "오늘은 오전부터 자꾸 의기소침해지네…."라고 이름을 붙여 보면 좋을 것이다. 이어서 '이 생각 또는 이 느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 생각과 느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물으며 그 궤적을 알아 나간다면 영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하루 15분쯤 머물러 우리 내면의 흐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 버클리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 자기 이해

**글** 신소희



## 식별의 기준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역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자연, 성경, 인간의 양심, 기도, 전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특히 강생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뜻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식별의 기준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사상과 풍조와 달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정서, 그분의 기도와 영, 그분께서 머무신 장소와 복장, 그분께서 선택하신 친구들과 인간관계, 그분께서 선호하시는 바를 배우고 익혀 나간다. 기도와 영적 수련을 통하여 점차 예수님과 개인적 사랑이 깊어지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하고 싶어진다. 점차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식별을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 하느님의 모상이며 그분을 닮은 존재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인 우리는 각자 어딘가 손상되고 일그러진 모습을 띠고 있지만, 본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그분을 닮은 존재'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리움과 더 온전해지고 싶은 원의, 깊은 일치를 바라는 갈망을 지닌 것이 곧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온 존재라는 반향

이 아닐까! 또한 우리는 지성과 의지와 다양한 정서, 관계에 대한 깊은 욕구, 그리고 무한한 욕망을 지닌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초한 인간의 자기 이해다.

한편,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사는 존재로서, 관계를 통해 손상되고 일그러진 면을 지니기 마련이며, 그 부분이 그대로 활성화되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은 무질서해지기도 한다. 이렇듯이 인간 실존은 참으로 미묘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또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말을 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은 '나의 원형이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신적인 품위와 자유를 나누어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닌 자기모순과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형편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나의 원형이신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깊이 갈망하며 나아간다.

### 우리는 시대의 아들과 딸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대의 아들과 딸로서 교회 안의 신원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가치보다 자신이 속한 가정과 단체, 사회의 풍조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듯하다. 신앙과 함께 세상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지성과 기억, 그리고 의지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과 관계 안에서 손상된 우리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나아가 몸에 밴 사회 문화의 가치와 현상들까지 알아차리는 것도 자기 이해에 필요한 요소이다.

몇 년 전 일이다. 한국으로 파견되어 다년간 사목하셨기에 우리말에 능숙하시고 우리 문화와 음식을 즐기시는 어느 선교사 신부님이 물으셨다.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학력이 고졸인 사람들이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나

요?" 그 신부님이 태어나 성장한 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본당과 수도자들 사이에서도 학벌이 유난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밖에도, 유교 문화가 요구하는 바, '나이에 따른 서열 의식과 예의 지키기, 여성의 역할 제한' 등은 우리 사회와 교회 전반에서도 복음을 앞지르는 영향력을 가졌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대의 두 가지 '도그마'(dogma), 곧 '효율성과 실용주의'에 따라 인간관계가 정해지기도 하는데(프란치스코 교황, 제28차 세계청년대회 미사 강론, 2013.7.27.), "과연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내면의 정서와 삶의 방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을 알아차린다면, 자신이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지금껏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려는 나' 사이에서 삶의 방향 선택을 미룬다면, 우리는 내면의 씨름이 계속되는 진통을 겪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로마 7,15.19.24).

### 예수님의 셈법, 세상 논리와 대척점

되찾은 양과 은전, 그리고 돌아온 아들(루카 15장)의 비유로 보여 주신 예수님의 셈법과 가치 기준은 '작은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살리는 일'을 우선시한다. 그분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며, 예수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 "일어나라"(마르 5,41)! "손을 뻗어라"(마태 12,13). "나와라"(요한 11,43).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루카 7,48). — 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문화가 지시하는 목소리 — "참아." "가만히 있어." "목소리 낮춰." — 를 쉽게 따라간다.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1668–1669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각자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면을 건드리며 달콤하고 그럴듯한 소리로 속삭이는 악마의 소리를 구분하기 어렵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知彼知己百戰不殆, 「손자병법」, 3장)는 말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적용되는데,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이 그와 흡사한 가르침을 남겼다.

또한 원수는 적을 쳐부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적장과 같이 행동한다. 즉 전쟁터의 최고 사령관이 진을 치고 상대방의 병력과 성의 배치를 살핀 다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인간 본성의 원수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향주덕과 사추덕 및 윤리덕을 살펴보아 가장 취약한 곳,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을 틈타서 우리를 공략하고 정복하려 한다(「영신 수련」, 327번 규칙 14).

오늘도 15분 정도 멈추어 주님의 빛 안에서 내 마음속 움직임을 헤아려 보도록 권고한다. "그 말에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이상하다. 오전 근무 시간 때와 달리, 왜 마음이 계속 가라앉고 슬퍼지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왜 나는 자꾸만 위축되곤 하지?"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민폐를 끼쳐 가며 왜 내가 며칠간 피정을 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알아차리게 된 마음의 흐름을 적어 본다.

의식 성찰을 꾸준히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자기 안에서 자기 이해와 영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져 감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예수님의 유혹과 식별, 그리고 우리

글 신소희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다. 젊은 수도자였을 때에는 사도직 일정 관계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순례를 종신서원을 발한 지 25년을 꼬박 채우고서 동료 수녀님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같이 걷고 계시는 듯 가까이 느껴진 순례 여정 곳곳이 감동스러웠다. 순례하며 접한 예수님의 전도 여행지의 지형과 환경이 그간 복음 묵상기도와 관상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새겨졌던 모습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눈이 열린 것이다. 그중에서도 예리코 지역에서 '요르단강 세례 터', '유다 광야'와 '유혹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간의 거리를 경험하며, 유혹 사화(루카 4,1-13 참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전보다 큰 울림을 남겼다.

##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혹 사화는 세례 사화에 뒤이어 나온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그때는 삼위께서 함께 계신 시공(時空)이었으며, 예수님으로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해지신 때였다. 예수님께는 성부와 성령과 일체가 되어 머무시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시는 존재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셨을 것이다.

그같이 찬란한 충만함의 경험 직후,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다(마르 1,12 참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식욕을 비롯한 육체적 욕구(루카 4,2-3), 권력과 영광과 지배욕(5-7절), 자기과시욕(9-11절)을 따르도록 유혹받으셨으며, 유혹자와 논쟁함 없이 단호히 성경 말씀으로만 대응하셨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꽉 차 계신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후퇴한 유혹자(13절)는 그분의 공생활 곳곳에서, 그리고 수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시간까지 예수님을 끈질기게 유혹하고 방해하며 조롱하였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유혹과 식별'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여운을 남겼다.

첫째는, 세 가지 유혹의 장소 사이에 거리와 시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유혹자의 활동이 여기에서도 가능하고 저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시시때때로 접근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켜 준다. 둘째는 유혹자는 누구를 통해서든 또는 무엇을 통해서든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유혹자가 예수님께 다가갔던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음을 의식하게 한다.

### 기도 중에 다가오는 유혹

필자는 피정 동반을 통하여 유혹자가 예수님께 접근했던 시점과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접근해 오는 것을 목격해 왔다.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이 어떤 대상에게 깊이 애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대상을 내려놓으려고 씨름한다. 그러다가 애착을 놓으면서 오롯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 현존에 잠겨 들어간다. 무질서했던 내면에 질서가 생기면서 사랑도 '질서 있는 사랑'으로 변모해 가는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롭

게도,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도에 몰입해 가는 시기에 이르면, 유혹하는 영의 훼방이 활발해지는 것을 본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니?"라는 속삭임을 듣는다. 그 속삭임은 '그동안 기도하며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피정하러 가느냐?"며 상사에게 핀잔받았던 기억으로 이어져, 기도 시간에 자꾸만 지역 공부방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과 돌아가서 해야 할 일에 관한 계획으로 빠져들게 된다.

다른 경우는, '지난 며칠간 기도하며 경험한 것들 모두 내가 만들어 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정에서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경험을 의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반대 영이 영혼을 거슬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가 그같이 생각과 상상을 통해 정신과 육체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영을 물리치고 나면, 그가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 안에서 내적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일상에서 만나는 유혹

아녜스 자매님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늘 최소한만 일하고 대부분 시간을 친구들과 소일하며 지내는 한량 같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부쩍 커져서 자주 고해성사를 보아도 미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생에서 '더 이상 손해 보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치달아 올랐다.

그 시기에 아녜스가 필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정기적인 면담과 일상에서의 기도 안내를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변화들이 생겨났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문득 결혼 무렵에 큰 허물과 약점이 있었던 자신을 남편이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기억나면서 자기 역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였으며, 마치 뭔가에서 벗어난 듯 마음이 열리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남편의 선하고 긍정적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며칠 뒤, 그는 나눔 중에 "남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난다."라고 하였다.

### 유혹의 통로들

성지순례 기간에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걸으며 베드로의 고백(마태 16,16), 첫 수난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22절)라고 펄쩍 뛰며 예수님을 말리던 장면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렇다. 유혹자는 당시 유다 사회의 기득권자 곧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제자로 인정받은 베드로와 당신 친척들을 통해서도 접근하였다.

유혹자는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그러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각양각색의 형상을 빌려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방식에서 멀어지고 내 뜻과 내가 선호하는 방식을 추구하도록 끈질기게 현혹하고 있다.

>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1베드 5,8-9).

이제 시작되는 성주간에 온 존재로 참여하고 기쁨의 부활을 맞을 준비를 하며, 매일의 삶에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맑게 깨어 있자. 그리고 우리가 향유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느님뿐이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소유할 대상임을 기억하자.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뜻밖의 방문, 부활하신 주님

글 신소희

아름다운 오월에 우리는 부활 시기를 지내며 머잖아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게 된다. 생기가 가득하고 꽃들이 만개하는 오월의 산천은 우리가 '부활'을 맛보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이웃이다. 교부들은 자연을 가리켜 하느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책, 곧 '창조의 책'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책을 통해 하느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내면의 상태를 묘사할 때도 계절의 현상에 이를 비유하기도 한다. 부활 시기 복음과 독서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심정과 삶의 태도는 사순 시기 복음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봄과 겨울, 대낮과 밤의 차이처럼 말이다.

## 두려움, 그 실존적 현실

제자들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신 예수님을 뵈었음에도 정작 그분께서 체포되신 순간에는 너무 두려워 모두 줄행랑쳐 버렸다. 심지어 성서학자들이 마르코로 추정하는 젊은 제자는 사람들에 붙들려 벗겨진 자기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나 버렸다(마르 14,50-52 참조). 유일하게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는데(요

한 18,10-11 참조), 그것도 자신의 두려움에서 행한 일로 여겨진다. 그는 예수님과 한패임을 부인하며 "그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한다(마르 14,71; 마태 26,74 참조).

우리 또한 두려움에 압도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위축되어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는 심정을 경험한다. 위기에 놓이면 우리의 실존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 다락방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 필자가 지난 예루살렘 순례 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방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이었으리라고 한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어 있었던 만큼, 은신처가 필요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다락방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그곳에서 숨어 지냈다고 전해진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던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거기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필자에게는 그 다락방이 곧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보냈던 큰 물고기 배 속'(요나 2,1 참조)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바늘구멍만 한 출구조차 없는 깊은 어둠 속, 오물과 뒤섞여 있었던 곳, 무력하게 혼란스러움과 죽음을 경험한 장소! 예수님께서 주검으로 무덤에 계셨던 사흘처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던 사흘은 아마도 그들에게 내적 죽음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존재의 바닥을 치는 시간이며, 근본적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다.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추구해 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즉 존재의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는 식별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 같은 시간이지만, 실존과 씨름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시련 속에서 제련되어 순수해지고 다시 방향

을 찾게 되는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다.

### 뜻밖의 방문, 예수님의 유머

예수님께서는 얄궂게도 우리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다. 오셔서 한가운데에 서시어 "샬롬!" 하며 인사를 건네시고,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이 이전처럼 드실 음식을 찾으시고, 못 자국 난 손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이성이 흐려져 예수님의 방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을 보는 줄"로 여긴다(루카 24,37). 이에 주님께서는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38절)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안심하며 믿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울 때도 좋으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 변모된 공간

복음서에서 '다락방'은 제자들이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장소이다. 최후의 만찬이 열린 방,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던 은신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곳,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오순절을 맞은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던 세계 각국에서 온 유다인들이 저마다의 말로 듣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사도 2,1-5 참조).

그것은 바벨탑의 붕괴 이후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게 된 사건(창세 11,1-9 참조)의 구원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도 크게 달라졌다. 성령께서는 오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선물을 통해 회심하고, 점진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도록 거듭거듭 힘과 용기를 주시며 동행하신다.

### 사라 자매님의 죽음과 부활

사라 자매님은 본당 구역장으로서 구역뿐 아니라 본당 행사와 모임 때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신부님이 봉성체 가실 때마다 동행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차기 구역분과장 감'이라며 칭찬하였으나, 연말에 발표된 차기 사목위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 뒤, 사라는 수치스러움을 느껴 다른 지역 본당의 미사에 참례하며 죽음같이 캄캄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는 본당 신부님의 연락을 받고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 끝에 신부님은 "자매님, 보속으로 본당의 성체조배실에 와서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하셨다. 사라는 면담을 했을 뿐인데 보속을 주신다는 말씀에 어이가 없었으나, 거역할 수는 없었다.

첫 주간, 사라의 기도는 섭섭한 마음과 원망과 화로 가득했다. 그러다가 어느덧 마음속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선행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자기 지향을 인식하게 되었다. '외로운 노인들과 아픈 이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아니고, '하느님을 흡족하게 해 드리려는 마음'에서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본당 신부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 그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그는 진정으로 하느님, 교우들, 신부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용서를 청하였다. 사라의 마음과 정신은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였고, '목적과 수단'을 식별하는 안목도 뚜렷해졌다. 그는 본당의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봉사하며 잘 지내고 있다.

"사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한때 후회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 슬퍼하여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2코린 7,8–10).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갈 망

글 신소희

## 알 수 없는 그리움

필자가 신학 공부를 하던 시기에 '영적 갈망' 사례 연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이다. 꽤 오랜 기간 한 신부님과 교분을 나눠 온 미카엘과 안나는 평탄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사는 50대 부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나의 말수가 줄어들고, TV를 보다가도 말없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미카엘은 어리둥절하여 "내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는가?" 물었으나, 안나는 "왜 자꾸만 눈물이 나는지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단다. 안나의 변화가 지속되자 미카엘은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였고, 신부님은 "안나 자매님이 며칠간 침묵 피정에 갈 수 있도록 제안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하셨다.

신부님의 처방은 묘약이 되었다. 안나는 일상을 떠나 피정 지도 수녀님의 안내에 따라 며칠간 기도를 하면서 자기 내면의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에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올

라와 자신을 휘젓곤 하던 힘은 '대상도 알 수 없는 그리움'이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눈물은 '하느님과 더 깊은 만남을 원하지만 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갈망의 표현'이라고 이름 붙였다. 안나는 차츰 마음이 진정되어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다. 그리고 가급적 해마다 단 며칠이라도 일상을 떠나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독대하며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낸다.

### 갈망이라는 동인

'갈망'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다. 이는 '욕구'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열망', '그리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갈망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방향에 영향을 주어 우리 생각과 행동을 주도해 나간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혹은 제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것을 기꺼이 하지 않는가? 어떤 갈망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만큼 힘이 세고 다루기 어려워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자극하는 힘과 에너지의 동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갈망은 영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피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직면하여 다루는 것이 영적 성장과 식별하는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영성가, 신비가들은 갈망의 힘을 높이 평가해 왔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의 현존을 애타게 찾는 심정을 노래하였고, 아가서는 한 영혼이 하느님을 찾는 갈망을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애타게 찾아다니는 젊은 연인에 비유하였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시편 63,2).

> (여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

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아가 3,1-3)

###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치유를' 구하며 당신을 찾아온 병자들과 자기 죄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마르 10,51) 그리고 당신께서 누구신지 더 알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20,15) 하고 물으신다.

애써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잘 아시면서도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질문은 듣는 이에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즉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바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질문이 된다.

어떤 젊은 수도자가 사제 수품을 앞두고 했던 장기 피정 중에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영신수련」, 23번)라는 기도 자료를 받았다. 그것을 읽는 순간 그는 화가 폭발하여 종일토록 기도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그는 피정 동반자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니, 저는 그처럼 이기적인 신(神)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동반 사제와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하느님을 찾기'보다 '사제가 되기'를 열망하였고, 사제직을 통해 주어질 명예와 인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숨겨진 욕구에 집착했던 자기 모습을 직면하였다.

그같이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집착하는 대상을 통해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제랄드 메이, 「중독과 은혜」[*Addiction and Grace*], 118쪽).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식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그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갈망을 아는 것'은 식별의 요소이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갈망을 식별하기 위해선 분별력 또한 필요하다.

### 무질서한 욕구에서 진정한 욕구로

예수님의 질문은 성취와 업적과 외부의 인정으로 향하던 시선이 점차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진정한 갈망을 향하도록 인도한다. 욕구야말로 우리 실존의 가장 깊은 차원을 이루는 것이며, 진정한 갈망 역시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내면의 무질서한 욕구들에서 진정한 갈망을 체로 걸러 내는 이런 과정은 영적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젊은 궁정 기사였던 이냐시오의 명예욕과 승부욕이 영적 수련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사로 정화되어 가는 모습은 좋은 예가 된다.

> 9. 이 수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식견을 쌓아 가면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고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급기야는 성인들을 본받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
> 11. … 그가 가장 위로를 받는 일로는 별빛 찬란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는데, 점점 더 그런 일이 잦아지고 점점 더 그 시간이 길어져 갔다. 그는 그 결과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마음속에 세차게 느끼게 되었다(「로욜라의 이냐시오 자서전」, 47–48쪽).

청년 이냐시오의 종교 경험에서 발견되듯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점차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넘어 자기를 내어주는 태도로 우리를 이끈다. 이번 달에는 독자들도 "나의 삶을 추진하고 그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갈망, 욕구는 무엇인가?"를 예수 성심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식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한다.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영적 위로

글 신소희

## 하느님 현존의 위로

신앙인들 가운데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여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말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다.'는 의미만은 아님을 알아차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깨어 기도하노라면 가까이 계시는 그분의 현존이 느껴져 깊이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신앙의 안목으로 보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어 지향 자체를 식별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 만일, 그가 간절히 원하던 바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아차린다면, 꼭 붙들어 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하시어 욕심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 체험은 성령께서 작용하실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과 정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식별의 삶에서는 내면의 심층에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다.

##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방식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로마 8,14 참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에페 5,9-10 참조). 또한 우리를 예수님과 하느님께 이끄시어 더욱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게 우리를 서서히 변모시키신다. 아울러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북돋아 주신다. 이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과 서간들에 기록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는 삶의 궤적들이다.

이냐시오 성인은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규칙 2. 자기 죄를 진정으로 보속하고 우리 주 하느님을 섬김에 있어 더욱 향상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 선한 영은 용기와 힘, 위로와 눈물, 좋은 영감들을 주고 침착하게 하며 선행에 있어서 쉽게 진보하도록 해 주고 장애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영신 수련」, 315번).

같은 책 316번에는 영적 위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서와 생각의 변화가 잘 설명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서만 사랑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영혼이 침잠하며 평온해지는 움직임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아, 기분이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 삶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관계나 환경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느님께 울부짖던 마음이 어느새 달라지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 아우구스티노의 경험

하느님과 멀리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그의 이성과 양심을 찌르고 심정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시는데(「영신 수련」, 314번 참조), "선한 영은 하느님 말씀의 목소리인 자신의 목소리로 영혼을 놀라게 하고 뒤

흔들고, 자신의 판단에 복종시키면서 … 그것은 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게 약이요, 음식이며, 힘이고, 쉼이며, 부활이요, 완성이기 때문이다"(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Sermones de diversis*, 24,2). 이는 성령께서 한 영혼을 회심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회심 과정이 적절한 예가 되겠다.

아우구스티노는 청년기의 상당 기간 동안 육욕에 깊이 빠져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습성에 젖어 지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바뀌어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에게 생긴 새 의지는 하느님을 향유하고 싶었으나, 몸에 밴 오래된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육체적인 습관과 영적인 의지가 맞부딪쳐 그 대립이 자신의 영혼을 갈가리 찢어 놓는 것을 경험하였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는 유혹에 무너지는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힘만으로는 육욕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거듭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느님 앞에서 통곡하며 도우심을 청한다(「고백록」, 8,5,11; 8,11,26–28 참조).

그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 양심을 일깨우시며, 우리가 회심하고 나아가 영적인 의지를 가지도록 인도하신다. 혹독한 회심 과정을 거친 아우구스티노는 후일에 「고백록」을 저술하였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서로 다른 눈물

이냐시오 성인은 영적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의 정서적 반응 중 하나로 '눈물'을 언급하였다. 그는 '눈물'이 영적 위로 상태의 표징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거짓 눈물)인지 분별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기 죄에 대한 아픔에서, 둘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수난 때문에, 셋째는 하느님을 위한 봉사와 찬미에서 바르게 질서 잡혀 있는 어떤 것들 때문이든 주님께 대

한 사랑으로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이다(「영신 수련」, 316번 참조).

일상의 묵상 중에 주님의 수난을 두고 기도할 때 의외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거나 심지어 냉랭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수난 여정에서 '나를 위한 사랑'을 보고 이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도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다가, 내 죄 때문에 머리가 깨질 지경이 되어서야 눈물이 그쳤는데, 이는 주님의 큰 은혜"(「영혼의 성」, 4,1,6)라고 고백한다.

기도 중에 자기 설움이 복받쳐 터지는 울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연민에 몰입되어 점점 더 과장되게 표현되는 울음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어느 때는 하느님께 대한 말씀 한마디만 듣거나 생각해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 쏟는 이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심장이 허약한 까닭입니다. 본인은 눈물이 좋은 줄 알고 그치려고도, 다른 일을 하려고도 않은 채 기를 쓰고 눈물만 짜내는 것인데, 악마는 이것을 기회로 사람을 약질로 만들어서 기도도 못 드리게, 회칙도 못 지키게 해 버립니다(「영혼의 성」, 6,6,7).

그러므로, 기도와 일상에서 생각과 정서의 흐름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는 성령의 빛 안에서 그 궤적을 살펴보고, '변화를 일으킨 계기'와 '그로 인해 생긴 영향'을 식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는"(요한 10,10 참조)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여정이다.

새로운 달 7월에도 하루에 15분 정도 멈추어 침묵하며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주님의 빛 안에 비추어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초대한다.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악한 천사

글 신소희

## 참된 위로의 지표

영적 위로의 시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게 된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충만함이 차올라 내적 든든함을 맛보며,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기 존재의 고귀함을 인식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관대한 마음과 용기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 내면의 움직임의 궤적

그런데,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1491–1556년)은 그같이 관대함과 사랑에 찬 내적 움직임과 활동의 "시작과 중간, 끝이 모두 좋고 모든 일에 선을 지향하면 이는 선한 천사의 표지이다. 그러나 떠오른 생각들의 진행에 있어서 결과가 악이거나 딴 길로 벗어나거나 처음에 하고자 한 것보다 덜 좋거나, 전에 가졌던 평화와 안정, 침착성을 빼앗아 영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면 이는 우리 영혼의 진보와 영원한 구원의 적인 악한 영에서 나왔다는 분명한 표지"(「영신 수련」, 333번)로 규명함으로써, 영적 위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악한 영이 주는 '거짓 위로'로 구분됨을 알려 준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의식하는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악한 영들도 이미지, 환시 혹은 감각적 말씀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속임수를 전파할 수 있다(마누엘 루이스 후라도, 「영적 식별」, 135쪽 참조). 예를 들어, 악마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예수님께 접근하여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만 응수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을 본떠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접근하지 않았던가!(루카 4,9-12 참조)

### 거짓 위로

거짓 위로는 '악한 천사가 빛의 천사의 모습을 취하고 들어와서 주는 위로'를 뜻한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바오로 서간에서부터 초기 교부들, 중세 신비가들의 저서를 관통하여 내려왔다.

>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고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2코린 11,13-15;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1224/1225-1274년)이 「신학대전」에서 식별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은 2코린 11,14에 대한 주해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영의 분별에 대해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할 때 이를 구별하는 원칙은 시간을 두고 체험을 관찰하는 데 있다."고 한다(「영적 식별」, 136쪽). "악한 천사는 처음에는 선을 향해 움직이게 하지만, 나중에 바라던 바와 의도하는 바를 실행하는 문제에 이르면, 악으로 이끌고 충동"하며, "인간의 감각을 타락시키고 욕정을 부추기면서 나쁜 것을 선하게 나타나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위의 책, 136-137쪽). 이 주제에 관한 그의 가르침이 로욜라의 이냐시오의 식별 규칙에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청년 이냐시오의 경험

영성가와 신학자들이 규명한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천사'가 주는 위로의 방식과 그것을 식별하여 물리친 경험이 청년 이냐시오의 영적 여정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젊은 궁정 기사였던 이냐시오는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회복하느라 요양하던 기간에 회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길을 떠난다.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스페인 몬세라트 인근 마을 만레사에 거처를 마련하여 9개월 정도 머물면서, 몬세라트 수도원의 한 사제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며 고행과 기도에 정진하였다. 청년 이냐시오는 만레사에서 그리고 그 이후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몇 차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가 주는 위로'를 식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음 예화는 그중에서 가장 초기의 경험이다.

> 그[이냐시오 자신]는 7시간의 기도 외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신 사정을 돕는 일로도 바빴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날 묵상하거나 독서한 하느님의 사정을 명상하며 보냈다. 그러나 자리에 들 때면 큰 깨달음과 영혼의 위로가 찾아오곤 하였으며, 그래서 그나마 많지도 않은 수면 시간을 잊은 채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일이 하도 이상스러워서 그는 벌써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짜 놓았고 하느님과 담화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당했었는지 자문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깨달음이 과연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쩐지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마침내 이런 상념에 개의치 않고 정한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는 그대로 실천하였다(이냐시오, 「자서전」, 26쪽).

만일, 이냐시오가 엄격한 고행과 절식을 하며 영적 수련을 하던 그 시기에 큰 영적인 깨달음과 영혼의 위로에 심취하여 수면 시간을 줄이고 기도를 지속했을 경우, 결국 그의 건강을 해쳐 마침내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마가 가

장 바라던 바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냐시오는 자신의 일과를 자세히 살피고 성찰하여 당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가 준 것으로 인식하여 그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다.

한편, 흥미롭게도 봉쇄 수도회인 가르멜 수녀회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1515-1582년)도 「영혼의 성」에서 이냐시오의 경험과 유사한 예를 들고 있다. 데레사 성녀는 '악마가 빛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올 때는 교묘하기 짝이 없는 수단을 써서 덤빌 뿐만 아니라, 선을 가장하여 영혼이 아주 하찮은 데서부터 하느님의 뜻을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로 끌어가는' 속성을 수녀들에게 교육하였다(1,2,16; 5,1,1; 5,4,8 참조).

## 무분별한 제안이나 허망한 약속에 깨어 있기

현대인으로서 식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의식할 점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혹은 무조건 나쁜 일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며 무분별하게 제안하는 일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리 내면을 휘젓는 매혹이나, 아름답지만 허망한 것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과 슬픔을 남기는데, 이 공허함과 슬픔은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택했다는 표지, 곧 방향을 잃었다는 표지가 되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 다시 식별하도록 내면을 두드린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페 6,12)이라는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영적 실망

글 신소희

## 영적 실망, 영적 고독

'영적 실망' 혹은 '영적 고독'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desolation'(이탈리아어로는 'desolazione')은 정서적으로 황폐함, 황량함, 적막함, 쓸쓸함을 뜻한다. 'spiritual desolation', 즉 '영적 실망' 혹은 '영적 고독'은 한 영혼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규칙 4. 영적 실망은 …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랑도 사라지며,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스스로가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이다(「영신 수련」, 317번).

위 인용문에서 설명하는 정서적 현상들은 영적 실망 상태의 의미 있는 지표가 되는데, 우리 모두 그 상태를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들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성' 즉 '그런 마음 상태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 과정과 방향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모든 훈육은 훈육의 대상에게 당장은 슬픔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사람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히브 12,11 참조).

### 하느님과의 거리감, 분노, 의심의 풍랑과 그 너머

소피아 수녀가 출장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평소에 농담을 즐겨하던 동료가 "수녀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으니 빨리 가족에게 전화해 보세요."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소피아 수녀는 "농담도 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녜요?"라며 발끈하였다. 소피아 수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뇌사 상태였다. 하느님께서는 이별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가족 모두에게 함께할 시간을 주셨고 어머니는 열흘째 되는 날 하느님 품으로 떠나셨다.

어머니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하느님께로 돌아가 행복하셨겠지만, 소피아 수녀는 가장 귀한 것을 강탈당한 심정이 되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 매일 기도 때마다 감실을 째려보며 "당신이 하느님이면 다예요? 하느님이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하느님이에요?"라고 따지며 씨름하였고, 하느님께서 '나의 고통과는 수천만 리 떨어진 먼 곳에 계신 분'으로 느껴졌다. 더욱 난감했던 것은, 불현듯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옛말이 떠오르며 '참으로 부활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든 것이다. 믿음도 희망도 흔들리는 마음에 소피아 수녀는 내심 당황하였다.

그렇게 하느님께 분통을 터트리며 불평에 찬 기도를 드리고 부활 신앙까지 흔들리던 시간이 연속되었으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소피아 수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에 와 있는 깊은 고요와 평화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하느님의 위로 안에서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 어머니가 생전에 간절히 바라시던 대로 아버지 하느님 품에 계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이 경우에서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고 멀어지게 하는 속성을 지닌 악한 영은 소피아 수녀를 슬픔에 빠져 낙심케 하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라는 장애물로 그의 믿음과 희망을 시험하였다. 이럴 때는 유혹하는 영이 원하는 방향을 거슬러서 힘껏 대응하고, 소피아 수녀처럼 그동안 해 왔던 영적 일과들을 변경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영신 수련」, 319번 참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을 겪게 하시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1코린 10,13 참조).

### 낡은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삶이 척박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은밀하게 다가와 유혹하는 영은 우리가 '거짓 이유'에 희망을 걸고 위로받도록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같다. 리타는 30여 년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배우자와 살며 시시때때로 돈 걱정에 시달렸다. 가정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걱정되어 두려워지고 화가 나면 리타는 성체 앞으로 달려가 앉곤 하였으나, 그 시간에 기도하는 대신 공상을 즐기는 습성이 형성되었다. 걱정의 무게에 마음이 짓눌릴 때마다 그는 '옛 연인과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상상하며 가짜 위안을 맛보곤 하였다.

리타는 피정에 참여하여 영적 동반을 받으면서 그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정 동반자의 안내를 따라 상상의 세계로 달아나지 않고 현재에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공상 속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설정한 옛 연인이 실제로는 속임수에 능숙한 사람이어서 결국 헤어져야 했던 기억과 직면하게 된 것이다.

순간 자신에게 은밀한 위로를 준 낡은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완전히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심정으로 서 있으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그가 피정을 마치고 떠나며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다. "수녀님, 현실이 매우 두려우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나요!"

리타의 경우, 선한 영이 '이성'의 분별력을 통하여 그를 일깨워 주시어 악습의 땅을 떠나 하느님을 따라나서도록 인도하신 예가 되겠다(「영신 수련」, 314번 참조). 우리 마음속에서도 종종 두 가지 생각이 널뛰기를 하는데, 그럴 때 '먼저 내 마음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길을 선택'(하시디즘의 가르침)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식별하는 마음'도 익어 가는 것 같다.

영적 실망의 시기는 '시련의 시기'로서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메마르고 의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쉬운 이 시기에는, 자신이 이미 결정했던 것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기도와 묵상과 성찰을 하며 영적 실망 상태에 힘껏 대응하도록 권고한다(「영신 수련」, 318-319번 참조). 인내로써 이 시기를 지내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순수하고 단단해지며, 하느님께 대한 지식과 영적 감각이 증진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상적 안목이 형성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 위로를 맛보는 시기가 다시 찾아온다.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자연의 생명을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해 주는 것처럼, 영적인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영적 위로와 실망의 시기가 오고 가는데, 이 영적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진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7). 그러니, 모두 용기를 내어 그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우리는 왜 영적 실망에 빠질까?

글 신소희

### 사라진 내면의 기쁨

"저는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성장했어요". 하느님의 시선 아래 엄마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그분의 현존을 경험했던 당시의 일상을 생생히 기억하는 루치아의 마음 속에 어느덧 질문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내면의 기쁨이 어떻게 지금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 복된 시간과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나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이제는 제가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제 여정의 양식이었던 성체도 더는 영할 용기가 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잠시 침묵이 흐름). 어쨌든 주님께서는 저의 집을 떠나셨고 저는 그것에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이전처럼 집안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현재 제가 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기가 제게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루치아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내면의 기쁨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던 복된 시절과의 대조에 당황하여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내적 상태를 나누면서야 비로소 자신이 영적 실망의 특징

(「영신수련」, 317번 참조)을 그대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영적 위로가 사라지면, 영혼이 어둡게 되고 자기 내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우리 능력들이 방해받아 혼란을 겪는다. 루치아는 '인지적'으로 내적 상태를 잘못 해석하여 '주님께서 내 집을 떠나셨다.'고 생각했고, 상실감에 '감수성'이 예민해져 자신에게 몰입하여 기도 대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였으며, '의지'가 약해져 기도 생활과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지속할 힘을 잃었다. 영적 실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바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미지근하며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분리된 느낌'이다(위의 책, 317번 참조). 그런 맥락에서 루치아는 더 이상 미사에 갈 용기조차 내지 못하였다(Brigitte-Violaine Aufauvre, *The Way*, 42/3, 2003년 7월 호, 47-56쪽 사례 인용).

### 진전을 가로막는 영

유혹하는 영은 루치아처럼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영혼을 낙담시키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초조한 집착에 사로잡혀 영혼의 진전이 가로막히도록 훼방한다. 악한 영의 유혹을 여러 방식으로 경험하였던 이냐시오 성인은 영적 실망에 빠지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규명하였다.

> 규칙 9. 우리가 실망에 빠지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수련들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소홀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탓으로 영적 위로가 떠나간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얼마만 한 존재인지, 즉 위로와 넘치는 은총의 상급이 없이 우리가 봉사와 찬미에 있어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셋째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인식을 주어서 우리가 큰 열심과 뜨거운 사랑, 눈물이나 다른 어떤 영적 위로를 일으키거나 갖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심이나 다른 영적 위로

가 어떤 교만이나 허영심에서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영신수련」, 322번).

현대 예수회 신학자 헤수스 꼬레야(Jesús Corella)는 위 인용문에 명시된 '세 가지 이유'를 쉽게 풀이하였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 영적으로 황폐함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고, 둘째는 하느님께서는 영적 실망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거저 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선물에 감사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셋째는 그분의 사람인 우리가 '큰 위로의 보상 없이' 봉사와 찬미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다.

영적 실망 상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차 생의 모든 것이 '선물과 은총'이라는 것을 배우고 인정하게 된다(*The Way*, 43/3, 2004년 7월 호, 19–34쪽 참조). 루치아의 경우, 영적 위로와 실망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위로와 은총의 대가 없이 하느님을 섬기고 찬미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다.

영혼이 황폐한 시기에 우리에게 조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주로 악한 영이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오래된 적, 악한 영은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해한다(1베드 5,8–9 참조). 이냐시오 성인은 악한 영을 인간 본성의 원수라고도 부르며, 「영신수련」에서 그것의 행동 원리를 파악하여 설명한다.

### 원수의 속성

원수의 속성은 첫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껏 강하며(325번), 둘째, 자신이 하는 일을 비밀에 부쳐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하며, 훌륭한 고해 사제, 또는 원수의 속임수와 사악함을 아는 다른 영적인 사람에게 그것이 밝혀지면 무척 원통해한다. 이로써 그의 뻔한 속임수들이 드러나 자신의 흉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326번). 셋째, 적장이 상대방의 병력과 성의 배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듯이, 원수도 향주덕과 사추덕 및 윤리덕을 살펴보아 가장 취약한 곳,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가장 필요한 곳을 틈타서 우리를 공략하고 정복하려 한다(327번).

예화에서 루치아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속아 "주님께서 내 집을 떠나셨다."라고 믿고 말했으나, 그녀가 '그의 속임수와 악의를 잘 아는 다른 영적인 사람에게 자신을 개방하며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326번 참조) 이 속임수는 좌절되었다.

루치아가 이미 경험했던 하느님의 말씀과 현존으로 맛본 내면의 기쁨에 대한 기억이, 그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엉망진창이 된 내적 상태를 비추어 봄으로써 더 이상 혼란의 덫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인도한 것이다. 아울러, 루치아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항상 남아 있는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320번) 원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겠다.

### 거저 주어지는 선물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 가는 것 같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요한 13,1) "길이요 진리요 생명"(14,6)이신 주님 앞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마음, 정서, 기도, 선호하시는 바,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양식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내면의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일구어 가자.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어둔 밤

글 신소희

얼마 전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악마는 투표권이 없는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적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왜곡하고, 관여하고, 비뚤어진 결과를 얻으려고 시도함으로써 그것을 전복하려고 합니다(Louis J. Cameli, *America*, 2023.10.3).

위의 기고문은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거짓의 아비"(요한 8,44)인 유혹하는 영 또한 그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늘 우리 주변을 서성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식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일어나는 공간

하느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을 향해 가는 영적 여정에서 우리는 '영적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실망'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하며 온전히 투신하는 가운데 영적 여정에서 '어둔 밤'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교회의 괄목할 만한 남녀 영성가, 신비가들의 영성 작품에 저자들의 '어둔 밤' 체

험이 잘 나타나 있다. 아래 내용은 「어둔 밤」을 저술한 십자가의 성 요한보다 300여 년 앞서 산 여성 신비가의 경험이다.

> 13세기 중엽에 활동한 베긴 신비가,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는 열 살 되던 때부터 하느님의 강렬한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한 이후 수많은 아름다운 은총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과 매우 친밀한 느낌을 지닌다(「편지」 11,10 참조).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하느님 '현존'을 느끼면서 맛본 달콤함과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평과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을 감추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의심하는 고통을 겪었다(「편지」 8,27 참조). 하지만 하데위히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현존을 추구하였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의 '현존' 경험과 신적 향유의 체험을 통한 기쁨을 맛보는 시기에 가지는 충실함보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스런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께 충실한 삶이 더 높은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하데위히가 깨달은 신비 의식의 본질적인 것은, 하느님의 '부재'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기쁨을 자각하는 것이며, 의심과 불안 가운데에 숨겨진 신앙에 충실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신소희, 학위 논문, 70쪽).

이같이 어둔 밤은 인간의 지성과 정감이 고통을 통해 정화되는 시기이며, 이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향한 과정에서 주어지는 경험이다. 따라서 '밤'의 의미는, 어둡지만 하느님과 깊은 친밀감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 마더 데레사의 영적 어둠

현대의 성녀 마더 데레사는 30여 년간 영적 어둠 속에서 지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어둠의 고통이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경험과 비슷하나 그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어둔 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로레타 수녀회의 종신 서원자이며 학교 교사였던 데레사 성녀는 1946년 연피정을 가던 길에 로레타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소리 즉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들었다(「어둠 속 믿음」, 41-42쪽 참조).

그는 교회의 절차를 거쳐 허락받은 후, 1948년 8월 16일 '사랑의선교수녀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데레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내면에 영적 어둠이 찾아왔다. 데레사는 끊임없이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그분께 거절당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과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고통스러운 갈망을 느꼈는데, 그것은 1997년까지 지속되었다.

> 제 안에는 마치 모든 것이 죽어 버린 듯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즈음부터 계속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게 용기를 주시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 영혼은 깊은 어둠과 쓸쓸함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시도록 할 뿐입니다(「나의 빛이 되어라」, 237; 244쪽).

지속되던 내적 고통에 시달려 온 데레사는 휴식을 취하러 피정을 떠났고, 그 피정의 은총으로 편안해졌으며, 하느님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어둠이 사업의 큰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정화해 주며,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 겪는 고통으로 주어짐을 알아듣게 되었다. 데레사는 같은 해인 1958년 10월 교황 비오 12세 장례 미사에서 큰 은총을 받아, 지쳐 있던 영혼의 원기를 회복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목마름의 신비로 완전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깊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 1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 고난을 겪으실 수 없지만 제 안에서 그것을 겪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께 저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수님의 처분대로 따를 것입니다 (위의 책, 337쪽).

데레사 성녀는 영적 어둠을 겪으며 점차 그가 섬기는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었고, 끔찍한 내적 어둠의 경험 안에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듣게 되었다. 즉 영적 어둠은 그의 사업의 영적 측면으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속죄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며 아울러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임을 깨달아 승복하였다. 그리고 내적 시련 속에서 영적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 좋은 식별을 바라며

우리 시대에는 권태, 탈진 또는 과로에 불과한 것을 '우울증'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또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이상화시킨 영적 삶에 대한 단순한 실망감을 '영적 실망'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도 많다(Brigitte-Violaine Aufauvre, *The Way*, 42/3, 2003년 7월 호, 47쪽 참조). 더욱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 복잡한 내적 상태에서 기도가 잘되지 않을 때에 자신이 '어둔 밤'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리적인 움직임과 영들의 움직임, 그리고 영적 여정의 과정에 대한 앎과 이해는 식별 과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정서 상태와 의식의 흐름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좋은 식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영적 동반 – 함께 비추어 보기

**글** 신소희

십여 년 전에, 필자에게 영적 동반을 받던 세라피나 수녀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가 영적 동반을 받으러 나선 길에서 본원 공동체의 연로하신 수녀님과 마주쳤다. "수녀, 어디 가는가?" "네, 성심회 수녀님에게 영적 지도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원로 수녀님이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영적 지도는 신부님에게 받는 거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수도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위와 같이 대체로 영적 지도를 고해성사와 동일시하셨다.

## 영적 지도의 변천 과정

영적 지도 방식은 교회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변천해 왔다. '사막의 교부(敎父)와 교모(敎母)' 시대(3세기경 시작)에 은수자들은 개별 영적 지도를 통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이해하고 영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후 점차로 수도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였는데, 베네딕도회를 비롯한 수도회에서는 각 수도회 규칙서와 원로들, 그리고 공동체가 회원들의 영적인 삶을 동반하였다.

중세 전성기에는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사제들 그

리고 여성 수도원장들이 영적 지도를 하였고, 평신도 여성 봉헌 생활자 중에도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베긴(Beguine) 신비가인 안트베르펜의 하데위히(13세기 전반–중후반), 은수자인 노리치의 줄리안 복녀(1342–1416년 이후),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1347–1380년), 제노바의 가타리나 성녀(1447–1510년)는 그들 시대의 성직자와 남녀 수도자, 은수자, 평신도들에게 신망받던 여성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중세 전성기와 후기의 유럽 교회에서는 괄목할 만한 영성가, 신비가들이 배출된 반면에 가톨릭에서 규정한 이단적인 영성 운동—정적주의, 조명주의, 얀센주의—또한 활기를 띠었다. 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파들이 1515년에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갔다. 당시 교회는 제기된 위협에 직면하여 성직자들에게만 영성 생활의 지도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죄와 양심'의 사례에 몰두하였다. 이때부터 영적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의 관계는 위계적이고 지시적인 특징을 나타냈으며, 십자가의 요한 성인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염려하며 비판하였다. 특히, 데레사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을 갖춘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나는 경험이 없는 지도자로 말미암아 불안과 비애 중에 있는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가엾은지 모르겠습니다. … 명석한 학식을 갖춘 사람에게 의논하는 기도의 영혼은 스스로가 속이지 않는 한 악마의 속임수에 희생되지는 않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악마는 겸손과 덕이 갖추어진 학식을 더할 나위 없이 무서워합니다 (「천주 자비의 글」, 제12장, 14–18).

데레사 성녀는 비록 영적 지도자가 영성 생활에 정진하고 있다 하여도 그가 학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딱한 노릇으로 여겼으며(19), 덕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영적 지도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를 통하여 교회의 자기 인식이 재조명되고 신학의 각 분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적 지도 분야도 영향을 받았다. 영적 지도와 고해성사가 구별되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의 필요에 맞게 구성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마친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내 신분에 제한 없이 각 지역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시므로 '영적 지도자'보다 '영적 동반자'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관점이 등장하여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와 영적 동반(spiritual accompaniment)을 혼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시대의 영적 동반자들은 양성 과정을 통하여 영적 전통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성장 및 기도의 역동성과 식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피동반자의 자기 이해와 식별 과정을 동반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또한 복잡다단한 인간의 심리·영성적 역동을 이해하며 영적 동반에 임하도록 주요 심리학 이론과 개념도 공부한다.

### 우리 마음을 휘저으시는 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생겼거나 의문에 휩싸일 때, 그리고 하느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을 느낄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삶의 부침 속에서도 영적 성장을 바라며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누군가와 신뢰 안에서 대화하고 지지받고 싶어 한다. 이때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휘저으시며 자극하시어 당신께 더욱 가까이 부르시는 때라고 하겠다. 영적 동반을 청하는 이는 일상 중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 즉 감사와 기쁨, 메마름, 의문과 갈등, 분노의 감정 등을 가져와 동반자와 함께 비추어 본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종, '방문객'

위의 시에는 영적 동반자의 심정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내담자가 풀어놓는 내면의 이야기를 환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된다. 하느님과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며, 발견하고자 관상적으로 경청한다. 한편, 내담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어 대화함으로써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난다. 우리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걸음은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고통, 부서짐 그리고 부자유한 영역들을 껴안는 것이다. 취약함은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어 가는 자리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되고, 온전해지며 더욱 인간적이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일에, 독자에게 식별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가능한 한 경험 있는 영적 동반자를 찾아 자기 내면의 흐름을 주님의 빛으로 함께 비추어 보며 식별하기를 권장한다. 영적 동반 과정이 좋은 식별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유다 1,2). ✠

**신소희 카리타스** 성심수녀회 수녀. 미국의 버클리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전공했다. 예수마음배움터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동반을 한다.

※ 한 해 동안 소중한 글을 보내 주신 필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